



키르기스스탄 추이군과 우호협력체결

공 무 국 외 연 수 보 고 서



담 양 군 의 회

목 차

I. 연수 개요	1
II. 연수 세부일정	2
III. 연수국가 현황	3
1. 키르기즈스탄 일반현황	3
2. 역사,정치,경제	3
IV. 연수내용	9
V. 주요 방문지	11
VI. 연수총평	14

I 연 수 개 요

○ 연수목적

- 2019년은 한-중앙아시아 5개국 수교 27주년이자 고려인 중앙아시아 이주 82주년이 되는 해로서,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고려인협회와 한-중앙아시아 관계가 지속 발전하는 추세에 있고
- 키르기스스탄 추이군과의 우호교류협약 체결로 경제,문화,관광,교육 등 상호교류를 통하여 상생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연수기간 : 2019. 11. 04(월) ~ 11. 09(토) / 4박 6일

○ 연수지역 : 키르기스스탄

○ 연수인원 : 15명 (5개 군의회 의장 5명, 담양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수행공무원 9명)

○ 참석자 명단

시 군	군의회 의장		담당자(수행원)		비 고
	성 명	연락처	성 명	연락처	
담 양 군	김 정 오		임 규 완		
			김 금 덕		
	김 미 라		심 현 아		자치행정 위원장
곡 성 군	정 인 균		김 대 중		
			이 승 욱		
고 흥 군	송 우 섭		신 상 훈		
강 진 군	위 성 식		김 도 형		
			최 태 근		
장 성 군	차 상 현		강 성 구		

Ⅱ 연 수 세 부 일 정

일 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주 요 일 정
1일차 11/4 (월)	광 주 인 천 알마티	전용차량 KC910 전용차량	06:00 10:00 12:05 15:50 18:20 19:15	• 광주 집결 후 인천공항 이동 • 인천공항 도착 후 출국수속 • 인천 국제공항 출발/알마티 향발(약 6시간30분) • 알마티 국제공항 도착 • 알마티 국제공항 출발 • 비슈케크 공항도착 • 호텔 투숙 및 휴식
2일차 11/5 (화)	비슈케크	전용차량	09:00 10:00 13:00 14:00 16:00 17:00	• 키르기즈스탄 주재 한국대사관 방문 및 하태역 대사관 인터뷰 • 알라아르차 국립공원으로 이동(약 1시간소요) • 알라아르차 국립공원 탐방 • 비슈케크로 이동 • 석식 및 호텔투숙
3일차 11/6 (수)	이식쿨	전용차량	09:00 10:30 16:30 17:30	• 이식쿨 호수로 이동 • 이동중 부라나 타워 탐방 • 이스크라 마을에서 중식 • 보옴 협곡 투어 • 이식쿨 호수 관광벤치마킹 • 석식 및 호텔투숙
4일차 11/7 (목)	이식쿨	전용차량	09:00 11:30 13:00 15:00 17:30	• 제티오구스 계곡으로 이동 • 중식 • 제티오구스 계곡 초원 트래킹 • 이식쿨 호수 출폰아타로 이동 • 석식 및 호텔투숙
5일차 11/8 (금)	비슈케크	전용차량 KC909	09:00 13:00 17:00 20:15 21:10	• 조식 후 비슈케크로 이동(약 3시간 소요) • 시군⇄추이군 우호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한국 새마을사업 시범마을 방문 • 비슈케크 국제공항으로 이동 • 비슈케크 국제공항 출발 • 알마티 국제공항 도착 및 탑승수속 • 알마티 국제공항 출발
6일차 11/9 (토)	인천	전용차량	10:00	• 인천공항 도착 후 광주로 출발 • 광주집결지 도착 후 해산

III 연수국가 현황

1. 연수국가 및 일반 현황



2. 연수국기 현황

국 기	국 기 설 명
	● 빨간색 배경은 용기(courage)를 상징 ● 황금빛 태양광선은 평온과 부를 나타내고 4개 태양광선은 키르기즈 고대부족을 상징 ● 가운데 유르타(천막집)의 꼭대기는 부계 혈통 의미

3. 일반 현황

수 도	비쉬켄(Bishkek), 100만명
대 통 령	소본바이 제엔베코프
의 회	의원내각제
면 적	198,500km ² (한반도의 0.95배)
인 구	641만 5,850명
위 치	중앙아시아(중국, 카자흐, 우즈베크, 타지키스탄, 접경)
종 교	이슬람교(80%), 러시아정교(15%), 개신교 등 기타(5%)
언 어	키르기즈어, 러시아어
주요민족	키르기즈인 70%, 러시아인 8.4%, 우즈베크인 14.5%, 위구르인1%
주요도시	2개 특별시(비쉬켄, 오시), 7개 주(뱃켄, 추이, 질랄아바드, 나린, 오쉬, 탈리스, 이시쿨)
기 후	대륙성 건조기후
화 폐	숨(SOM) [평균환율 1달러=70숨]
GDP	1,281.36달러(2019년 기준)
시 차	한국보다 3시간 느림

4. 역 사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은 러시아혁명 이후 성립되었으나 키르기스인은 기원전부터 에니세이강 상류 유역의 삼림지역에 살던 수렵민족집단으로, 7세기 돌궐, 당, 위구르, 몽골, 청 등 주변 강대국의 지배를 많이 받아왔음. 1864년 러시아 지배시 러시아인의 이주가 시작되었음.

1917년 혁명 후, 소비에트 투르크스탄의 일부가 되었고, 1924년 키르기스 자치주가 되었음. 구소련 연방의 해체에 따라 1991년 8월 정치적으로 완전한 독립국가로서 주권을 선언하였음.

2005년 국민적 시위는 대통령 축출로 이어졌으며 2006년 비쉬케크에서 반정부 소요가 발생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을 정부와 행정부로 이양하는 신헌법 개정으로 이어짐, 국영기업의 사유화, 민주와 정치적 자유의 확대, 부패추방, 민족 갈등 및 테러리즘과의 투쟁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포함됨. 1989년에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국경에서 토지와 물의 이용권과 관련해 양국민이 충돌하여 사망자가 나고, 최근 타지키스탄은 국경선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음. 1990년에는 오슈주에서 주택용지의 분배를 둘러싸고 키르기스인과 우즈베크인이 대립하여 폭동이 일어나고 양국 국민의 감정대립으로 발전하여 4,000명의 부상자를 냈음.

5. 정 치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10. 6. 27. 헌법개정)

○ 대 통 령 : 6년 단임제

○의회형태 : 5년 임기 100여명(비례대표제에 의한 선출)

※1개의 정당이 과반 의석(65석) 확보 금지

○국제기구가입 : UN(92년), WTO(98년)

○정치정세

- '90. 10. : 아카예프 초대대통령 취임
- '91. 8. : 독립선언
- '05. 3. : 톨립혁명으로 아카예프 대통령 사임
- '05. 8. : 바키예프 대통령 취임
- '10. 4. : 반정부 시위로 정권교체 및 과도정부 수립
- '10. 6. : 헌법개정 국민투표로 의원내각제 도입
- '10. 7. : 오톤바예바 대통령 취임
- '10. 10. : 총선
- '10. 12. : 연합정부 구성 및 아탐바예프 총리 내각 출범
- '11. 10. : 대선(아탐바예프 총리, 대통령으로 당선)

6. 경 제

○ 주요경제지표(IMF, EIU)

- GDP('19) : 1,281.36달러
- 1인당 GDP : 1,251달러
- 화폐단위 : 솜(som) 1달러=70솜

○ 교역규모 : 70억불

- 수출 : 30억불
- 수입 : 40억불

○ 주요자원 : 금, 석탄, 안티몬, 천연가스, 수은, 버섯, 꿀

7. 우리나라와의 관계

○수교 : '92.

○ 공관설치 : '07. 1.

○ 교역규모

- 수출 8,221만불(자동차, 합성수지 등)

- 수입 120만불(건과로, 고철 등)

○ 고려인 동포 : 17,200명

○ 한국교민 : 1,000명

○한-키르기즈 주요인사 상호방문 현황

- '93. 08. : 칭기셰프 총리, 대전엑스포 계기 방한
- '94. 03. : 주마굴로프 총리 방한(세계일보사 처창)
- '97. 06. : 아카예프 대통령 방한
- '04. 10. : 주말리에프 부총리 비공식 방한
- '08. 08. : 이윤성 국회부의장 방한
- '12. 06. : 바바노프 총리 방한(제주평화포럼 참석)
- '12. 07. : 카자크바예프 외교장관 방한
- '13. 11. : 아탐바예프 대통령 방한
- '14. 02. : 제엔베코프 국회의장 방한
- '14. 07. : 자마셰바 대법원장 방한
- '15. 01. : 술탄베코바 국회부의장 방한
- '15. 05. : 오톤바예바 전 대통령 방한
- '15. 10. : 케멜로바 1차관 방한
- '19. 17. : 이낙연 총리 방한

○ 타 지자체 간 협력 현황

- '91. 08. : 경북 구미市 - 비쉬켄市간 자매결연
- '07. 11. : 전라남도 - 추이주간 협력약정 체결 등

8. 추이군 주요 현황

- 군수 : 아프바소프 카느벡 사근베코비치
- 인구 : 54,340명
- 면적 : 175.6km²
- 위치 : 수도 비슈케크에서 약 25km
- 기후 : 건조하고 시원한 날씨
- 행정구역 : 38개 마을
- 주요산업 : 농업, 축산업, 무역
- 교육기관 : 29개 중학교

IV 연 수 내 용

□ 방문 기관별 연수내용

1.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주재 한국 대사관 방문

■ 개요

- 일 시 : 2019. 11. 5.(화) 10:00(현지 시각)
- 장 소 : 키르기스스탄 한국대사관
- 주요내용 : 대사관 일반현황 및 양국 협력 비전제시등

■ 방문결과

- 키르기스스탄은 내륙국가로 항만시설이 없어 육상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하자원이 풍부하지 않아 주변국가에 비해 낙후되어 있음.
- 키르기스스탄의 농산물은 품질이 매우 좋은편이나 농산물 저장 기술과 포장, 유통하는 부분이 매우 뒤쳐져 있으므로, 농산물저장과 포장 기술에 대한 투자와 기술 보급이 필요함
- 담양을 비롯한 전라남도는 고령화로 인하여 농업인력이 부족함 키르기스스탄은 평균연령이 낮고 한국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므로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영농철 농업인력 파견을 위한 시책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낌.



2. 키르기스스탄 추이군와의 우호협력 체결

■ 개요

- 일 시 : 2019. 11. 8.(금) 14:00(현지 시각)
- 장 소 : 키르기스스탄 추이군청
- 주요내용 : 우호협력 체결등

■ 방문결과

- 키르기스스탄 추이군 초청으로 양 자치단체간에 우호교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
- 키르기스스탄은 주변 중앙아시아 인접하여 있어 중계무역이 유리하고 천혜의 자연경관과 풍부한 관광자원이 향후 양 도시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국외 활동 영역을 넓히게 됨은 물론, 담양을 비롯한 전라남도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
- 키르기스스탄은 평균연령이 낮아 노동인력은 풍부하나 농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창고와 이에 따른 포장재기술이 미흡하여 농산물의 유통 비용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고 가격에 대한 효율성이 미흡하여 이에 따른 투자와 기술개발이 적실히 필요함.
- 우호협력을 넘어서 양 자치단체간은 서로 공유하고 협조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함, 앞으로도 교류와 대화의 장이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음



V 주 요 방 문 지

☐ 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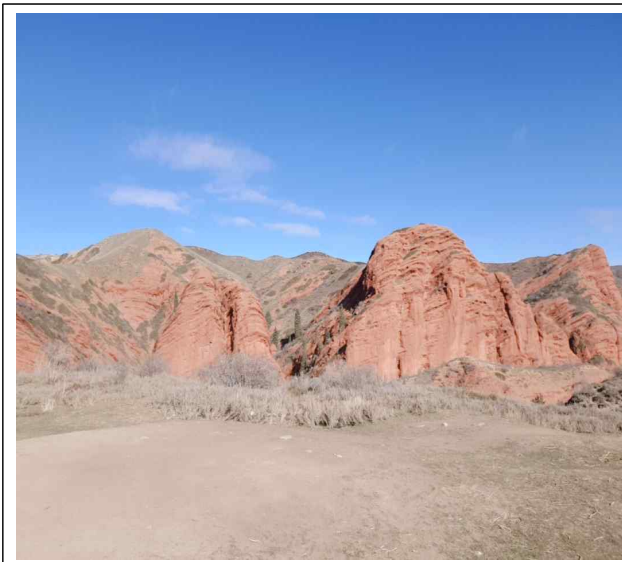
☐ 비슈케크 알라르차 국립공원 탐방



□ 이식쿨 부라나 타워 탐방



□ 이식쿨 제티오구스 계곡 탐방



□ 비슈케크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방문



□ 추이군청



VI 연 수 총 평

- 이번에 추진한 연수는 키르기스스탄 추이주 추이군로부터 우호협력 및 교류에 대한 정식 요청에 의해 추진하였다.
-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중 가장 낮은 임금과 최저 세금부과 국가이며 주변 5개국과는 무관세 동맹을 맺어 제조업등 기업을 운영하기에는 더할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었다.
특히 싸이와 방탄소년단등 젊은층 사이에서 일어난 한류붐은 대한민국에 대한 친밀감이 더욱 높아져 한국인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매너가 좋았다.
- 키르기스스탄은 우리에게는 낯선 나라이며 사전정보도 부족했지만 하태역 대사님께서 키르기스스탄의 일반현황과 풍부한 잠재력, 그리고 부족한 부분까지 꼼꼼이 설명하여 주셨다.
- 특히 우리군과 중점적으로 협력할 분야는 농업부문이었다.
우리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다.
반면 키르기스스탄은 노동력은 풍부하나 농산물 가공, 포장, 유통부분은 취약하였다.
- 우리군에 강점인 농산물 재배기술과 농산물 가공, 포장 기술을 보급하고 키르기스스탄의 노동력을 제공받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단, 노동력에 대한 협의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주관하여 영농시기별 일정을 조정, 전체적인 인력수급이 필요하다고 본다.
- 방문한 곳과 만난 사람들, 컨퍼런스의 내용들은 연수취지와 정확하게 일치하였으며, 심층적이고 영향력 있는 인사들과 미팅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 특별히 이번 연수에서 확인한 점은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을 성공모델로 하여 키르기즈스탄 이스크라면(面)에서 새마을운동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 중앙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더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 끝으로 이번 사전적인 우호협력단계에서 멈추지 않고 양 자치단체간의 문화교류, 벤치마킹, 농업기술보급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로 발돋움하여 서로 신뢰를 쌓고 형제의 나라로 인식되길 소망한다.